

금요 수필

한국문화의 깊이를 다시 생각해 보며

요즘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케이헌'의 세계적 열풍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보다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려한 영상미와 K-컬처의 감각적 매력에 이끌려 박물관을 찾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그 안에서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문화가 지닌 오랜 시간의 숨결, 그리고 그 깊이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것이 한국 문화의 매력이자 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지난해 10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국경감사는 보통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라 낯선 공방이 오가기 마련인데, 그날만큼은 달랐다.

한 국회의원이 중앙박물관의 손기정 기증 전시회(창동 부구 보물 등 18건 18점) '머리로 세계를 제패한다'를 언급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칭찬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뜻밖의 따뜻함이 물어났다. 이 여지는 질의에서도 "5백만, 천만, 2천만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박물관이 되길 바란다"라는 격려가 잇따랐다.

질책 대신 응원과 격려의 말이 오가는 국경감이 되니 그 자체로 유쾌하고 신선한 풍경이었다.

특히 유흥준 관장의 한마디는 국경감사 회의장을 한순간에 웃음으로 채웠다.

그는 자신의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이는 만큼 보인다"라고 썼던 소회를 밝히면서, "요즘은 박물관 관광이 되고 나니 '주는 만큼 일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솔직 예



이만호 수필가

산 지원을 요청했다.

그 재치 있는 말에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의원은 "보는 만큼 느낀다"라고 화답하며 명연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문화가 가진 '정'과 '여유', 그리고 유머 감각이 살아 있는 작은 축제같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나는 이 장면이 유독 마음에 남는다.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은 단지 오래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있고, 웃음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문화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8년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온 일이 있다. 유명 명화인 모나리자 앞에서 길게 늘어선 수많은 인파로 경찰이 통제하고 정작 그 작품 앞에서는 지나치는 정도의 관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스 유명 조각 작품들도 웅장하긴 하였지만 그 작품은 그리스에 있어져 프랑스 루브르에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서구의 대부분이 큰 박물관을 떠올리면 웅장하긴 하지만, 그 전시품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전리품이나 약탈 문화재로 채워져 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묘한 기분이 든다.

반면 우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가 유실되고 약탈당하는 아픈 역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5천 년의 시간을 품은 유물만으로도 박물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이 만든 뛰어난 미적 감각의 많은 문화재 앞에 늘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나는 한 점의 토기, 한 장의 민화, 한 폭의 풍속화는 그저 오래된 물건이 아니다.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견디고, 이름 없는 장인의 손길을 지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너 오늘에 이르렀다. 그 유물 하나하나가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 땅의 시간은 이렇게 깊었다"라고.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문화의 힘, 다시 말해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문화민족이 되기를 바랐다. 그 말씀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여전히 가슴 한복판을 울린다.

요즘의 시대를 한국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패션이 세계 곳곳에서 환호를 받고, 한국의 이름이 문화 앞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된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있다.

오랜 역사와 수많은 상처를 견디며 살아남은 문화재들, 그 안에 쌓인 정신과 가치,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한국인의 마음이 있다. 그 깊이가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탱한다.

나는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든든해진다. 단지 유물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지켜온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계인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은 결국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다.

지켜온 마음, 이어온 역사, 서로를 향한 따뜻함,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망. 이 모든 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다시 우리를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믿는다. 우리의 문화는 앞으로도 더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화려함보다 깊이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온기로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사설

사어당 최남규 작품전

사어당(四於堂) 최남규 작품전이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주 시 완산구 평화로 155 오브제 갤러리에서 열렸다. 사어당은 학문과 삶속에서 조화로운 인간적 교양을 추구했다는 말이다.

작가는 현재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다. 대만동해대학 박사, 중국남경대학 박사,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서예, 서각전 20회, 개인전 4회 등에 출품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작품이 돋보인다. 맹호연(孟浩然 惺德江詩)을 비롯 색즉시공(色卽是空), 교화상장(敎學相長), 함덕적자(含德赤子), 경(慶), 정언약법(正言若反), 자(慈), 도광(道光), 음수곡경(飲水曲觴), 염담(鹽淡), 태상하지유지(太上知有之), 소식(蘇軾)

무정유사(無情有理), 일취월장(日就月將), 세월(歲月), 안인(安仁), 상가지구(喪家之狗), 만물자연(萬物自然), 소이부담(笑而不答), 상선약수(上善若水), 청정무위(淸靜無爲), 애일부족(愛日不足), 후작(侯爵) 등이 선을 보였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은 <스님이 달빛을 탐내어 병속에 불과 달을 함께 길었네>, 상가지구(喪家之狗)는 '상가집게, 떠돌이개, 즉 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이부담(笑而不答)은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느냐 하니, 웃으며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절로 한가롭네>, 도광(道光)은 도광양회(道光養晦)의 준말이다.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도(道)는 감춘다는 뜻이다.

문체영의 '봄날의 이야기'

문체영 작가 '봄날의 이야기'와 문헌경 작가의 '감정삼장' 전시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라 2실에서 열렸다.

문체영 작가는 자신의 작업노트에서 '자유로운 물고기'가 좋다.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반짝이는 비닐 웃을 입고 오늘도 세계 속으로 떠나야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전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 7길 5에서 '인생 2막'을 전시했다.

문체영 작가는 새로운 숫자를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에 하나둘씩 변화를 가진다. 나를 누르던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인생 2막으로 달려가 본다. 가득 채워졌던 나의 일상을 이제는 '공' 비워가는 것에서 주인공(물고기)처럼, 새로운 인생 2막을 그려보고 나를 위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한편 문헌경 작가는 '어떤 감정을 사시켰습니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대답한다. "동글동글한 버블이 좋다. 소리내진 않지만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 내 안의 감정들과 버블이 영기고 성기고 겹쳐진 듯, 동글한 버블처럼 동글동글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작업노트에서 밝혔다.

문체영 작가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를 졸업했다. 개인전 9회와 단체전 다수에 출품했다.

초대작가전, 한국대표작가, 초대전 (2025, 서울 인사아트) 등이다. 현재 전북미술 작가회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다. 문헌경 작가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약물운전, 이젠 명확한 처벌 대상이자 중대한 교통범죄

최근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일부터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던 약물운전이 이제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자 중대한 교통범죄로 관리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며, 경찰의 약물 운전 측정 권한이 신설됐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응 시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준 또한 강화됐다. 약물운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병행되며, 측정 불응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약물운전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다만 모든 약물 복용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약 처방이나 구입 시 운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이다. 약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한다.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아닌, 사전에 확실히 예방하는 습관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혜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